

# 대학연계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전주시, 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 등 전주권 대학 교수들이 전주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강사에 참여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  
전주시와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10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과 강인주 전주기전대학부

설 평생교육원장, 김은성 전주비전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관들은 전주시민의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학습자 중심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평생학습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학 전문인력과 함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와 협약 참여 대학들은 대학 교수를 강사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

램을 기획하는 등 상호 교류와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참여기관들이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할 경우 상호 적극 홍보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권 대학들이 지역사회 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대학의 전문성 있는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전북대학교 인문대학(학장 신중균)과 전주시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과 전주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 인문대 소속 12개 학과의 교수진 19명은 올해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역대학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 대학들과 함께 전주시 평생교육의 수준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환경정비** 전주시는 최근 봄철을 맞아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진입로 일원에서 민·관 합동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에는 시 청소 관계부서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민지원협의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및 처리시설 운영대행사 등이 함께 참여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운반하다 떨어져 도로 위에 방치된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했다.

## 책과 함께 성장하는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전주시, 13일부터 9개 시립도서관서 6세~초등학생 대상 진행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채로운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서 관심을 비롯한 9개 시립도서관에서 6세 이상 아동과 초등학생 23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놀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도서관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책 놀이와 유아미술, 생활공예, 과학 놀이, 한국사 등 총 19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도서관별로 살펴보면 꽃심도서관에서는 '신나는 책놀이', 책이랑 창의

놀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삼천도서관에서는 '책으로 만드는 생활공예, 이야기 안에 있는 요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또 △창의Go 보드Go 만들Go, 책이랑 놀이랑(영화) △유아미술,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사(효자) △책이랑 놀이랑, 도서관 1열 한국사(송천) △어린이 과학놀이, 이야기 한국사(금암) △다함께 전통놀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확접기, 동화책과 함께하는 전통놀

이(인후) △그림책과 떠나는 책향기, 창의력 풍풍!오감만족 책놀이(아중) △그림책과 함께하는 생태놀이, 책과 함께 꿈꾸는 미술놀이(건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단 올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 중인 완산·서신·죽곡동 등 3개 도서관에서는 책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책놀이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은경 기자

## 전북환경청, 해빙기 맞아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전북내 대규모 토석채취, 도로, 도시개발 사업중 해빙기에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환경사고 발생 우려가 큰 15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절·성토 사면의 안정적 관리 여부, 침사지·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관리 여부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승인기관 등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해 미흡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연중 승용·승합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옛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신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의 운전

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습관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단,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자동차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주시 배정물량이 998대로 한정돼 있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유주 기준으로 1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에 따른 인센티브는 연 1회(12월) 지급된다. /조아록 기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car.cpoint.or.kr) 또는 QR코드를 통해 회원가입 후 참여하면 된다. 시는 1차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기간 내에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인센티브로 총 539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참여자들이 주행거리 감축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27.3t으로, 이는 20년생 소나무 5만1000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김영태 기자

## 전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 추진

앞으로 도내 교통안전시설 재검비에 따른 지역민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을 시작

했다. 점검은 도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16만9885개(신호기 2984개, 안전표지 11만6457개, 노면표지 1만747개, 횡단보도 1만5760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3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8주간 등

안에 거쳐 '노후화로 훼손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교체가 진행된다. 특히 노면표지 시인성 검사를 통해 반사 성능 기준에 못 미치는 노면표지는 재시공 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고 정비 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기상과학문화 행사 '풍성'

### 세계기상의 날 맞아 국립전북기상과학관서 25일 개최

전북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상과학문화 행사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 오는 25일 개최된다. 이용섭 전주기상지청장은 세계기상의 날(2023.3.23.)을 맞아 '9가지 다양한 실내·외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구름' 화폐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웨더마켓,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고층기상관측장비(라디오존데) 시연과 기상과학 특강, 과학미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행사 '웨더마켓'은 날씨, 기후, 지구의 미래' 주제로 유아와 청소년 대상으로 '미니 드론 체험, 기상기후 사진전, 도전! 기분 좋은 퀴즈!' 등 과학관 야외 공간에서 운영되는 4개 프로그램과 '인피니티 클라이더 체험, 태양 관측, 일기도 그리기 체험' 등 5개 실내 일무수행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기

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입문 완수를 해야 얻어지는 '구름' 화폐를 사용해 만들기 프로그램과 웨더마켓에서 물품이나 간식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기상관측장비 시연'은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고층기상관측(라디오존데) 시연을 준비했고 기상과학 특강을 마련했다. '행사 공연'은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풍선 과학미술 공연이 진행되며, 이날 방문 관람객에게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된다. 이용섭 전주기상 지청장은 "도민과 함께 세계기상의 날에 대한 의미와 주제를 되새겨 보고 기상과학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느껴주길 바란다. 전주기상지청은 앞으로도 과학관 이미지 제고와 함께 기상과학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생활 속 실천 행동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동기부여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산불 예방수칙 등을 전하며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고, 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됐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산불 예방에 앞장선

것이다. 소방서에서 알리는 주요 산불 예방수칙 및 신고 요령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소각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 삼가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엄금 △산에서 연기가 불을 발견하면 119나 관할 산림부서에 신속히 신고 등이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